

 <b>보건복지부</b>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	
배 포 일	2020. 4. 20. / (총 8매)	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	팀 장 담 당 자	홍 승 령 조 영 대	전 화	044-202-3575 044-202-3805	
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	과 장 담 당 자	노 혜 원 이 승 훈	전 화	044-200-2293 044-200-2295	
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1팀	팀 장 담 당 자	오 진 희 양 진 혁	전 화	044-202-3711 044-202-3712	
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	팀 장 담 당 자	조 은 희 박 숙 경	전 화	043-719-9314 043-719-9313	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	과 장 담 당 자	황 영 호 김 성 일	전 화	042-481-4545 042-481-4385	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생활치료센터 향후 운영 계획, ▲시험 방역 관리 방안 등-

- 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(국무총리)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▲생활치료센터 향후 운영 계획, ▲시험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- ☐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며,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.
- 또한 방역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,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미리 찾아 확인하고 조치하는 노력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.

## 1 생활치료센터 향후 운영 계획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**향후 운영 계획**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.
  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**경증환자의 치료**를 위해 대구·경북환자 센터 16개, 해외 입국환자 센터 2개소로 **총 18개의 생활치료센터**를 설치·운영해 왔다.
  - **총 입소자 중 2,94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** 되었고, 155명은 병원으로 전원(轉院) 조치하였다.
- 이후 대구·경북환자 센터는 환자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16개 센터 중 11개소는 운영을 종료하고 5개 시설로 **통합·운영** 중이다. (4.19 기준)
  - 나머지 5개 센터도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, 지방자치단체 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- 해외 입국환자 센터는 해외 입국환자와 더불어 수도권 등 대규모 감염 확산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  - 해외 입국환자와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수도권 지역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(약 300실 규모)한다.
-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시설·인력기준, 비대면진료 등 환자관리 절차 등을 표준화한 '**생활치료센터 표준 모형\***'을 마련하고 보급하여
  - \* 표준 모형 영문 번역 및 보급 예정
  - 코로나19 장기화 및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모형에 따라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.

##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방안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단모임이나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해 ‘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’를 마련하였다.
- 지침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-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\*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. 또한,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,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,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.
  - \* 보건소, 소방서, 의료기관 등
- 시험 당일은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하고, 출입 시 체온 측정,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하며,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 확보(최소 1.5m 이상) 등을 지키도록 안내하였다.
-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여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,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,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,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.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들이 안내를 참고하여 사전·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### < 시험 사전 고시사항 (예시) >

- ① **(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)**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
- ② **(출입금지)**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
- ③ **(유증상자)**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
- ④ **(응시자 및 감독관)**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,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, 철저한 손 씻기 등을 실시
  -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
  -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, 개인 음용수 준비 고지

## 3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상황

- 4월 17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612,123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다. [붙임1]
- 이 중 342,759건(56.0%)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242,767건(39.7%)에 대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.
-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, 신청대비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85.6%로 가장 높았고, 대전(77.9%), 충북(71.6%), 전남(71.3%)이 뒤를 이었다.
- 대출 실행 비율은 울산이 65.9%로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 제주(62.1%), 대전(56.4%), 충북(47.4%)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- < 붙임 > 1.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 
2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  
3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< 별첨 >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

- < 홍보자료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  
2.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
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  
4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
5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
6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
7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
8. 마스크 착용법  
9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

## 붙임1

##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(4.17일 0시 기준)

### □ 전국 집행 실적

-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612,123건\*의 보증신청을 접수,  
이 중 56.0%인 342,759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, 39.7%인 242,767건의  
대출 실행

\* 중소기업부 코로나19 특례보증, 지자체 특례보증,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

\* 신청 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 대기 건수를 합한 수치임

### □ 지자체별 집행 실적 비교 (4.17일 0시 누계)

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현황		
지역	보증서 발행	대출실행
총계	56.0%	39.7%
강원	64.2%	46.6%
경기	54.9%	44.0%
경남	44.3%	31.9%
경북	70.1%	35.8%
광주	59.4%	37.5%
대구	40.1%	26.6%
대전	77.9%	56.4%
부산	53.1%	45.3%
서울	51.9%	34.3%
울산	85.6%	65.9%
인천	61.1%	44.9%
전남	71.3%	43.7%
전북	51.4%	40.7%
제주	69.4%	62.1%
충남	47.4%	33.5%
충북	71.6%	47.4%

## 붙임2

##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
### 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

## 붙임3

##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### 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### 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\*

\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### 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### 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